



# 미국 팁 근로자의 현황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한주희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애머스트캠퍼스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처럼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는 셀프서비스 식당 이외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값에 더해 15~20%의 팁을 지불한다. 서비스가 나빴다고 느낀 경우에는 팁을 주지 않거나 아주 적은 액수를 지불하기도 하고, 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를 팁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팁의 액수는 고객이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일부 음식점에서는 6~8인이 넘는 테이블의 경우에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산서에 팁을 포함하여 청구하기도 한다. 이들 웨이터나 바텐더 등 팁 근로자는 미국 전체 근로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이 아니라 고객의 팁에 수입을 의존한다.

최근 이러한 팁 관행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식당에서 팁을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sup>1)</sup>한 대신 팁으로 웨이터/웨이트리스의 임금을 부담하던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팁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해서 이를 음식값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식당의 고용주들은 팁 관행을 폐지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크게 ① 식당 내 근로자들 사이의 수입 불평등을 해

1) <http://www.nytimes.com/2015/08/24/business/economy/as-minimum-wage-rises-restaurants-say-no-to-tips-yes-to-higher-prices.html>

소하고, ② 일반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법적 최저임금(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최저임금(시간당 2.13달러)을 받는 팁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2)</sup>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일반 근로자들의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시간당 10.1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2014년 제안된 공정최저임금법안(Fair Minimum Wage Act of 2014)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개별 주와 도시 등 지자체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도입해 일반 근로자 또는 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백악관<sup>3)</sup>과 정책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sup>4)</sup>(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팁 근로자 최저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팁 근로자 현황 및 관련한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 팁 근로자 최저임금 현황

### 팁 근로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분리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현재 일반 근로자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인 데 비해,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낮은 2.13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둘 사이의 차이(7.25-2.13=5.12달러)는 고용주에게 있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고용주 팁 크레딧(employer tip credit)이라고 불리는데, 이 차액은 고객에게 받는 팁으로 임금이 보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만일 고객에게 받는 팁을 적용해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인

2)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5/10/14/448678237/danny-meyer-will-banish-tipping-and-raise-prices-at-his-restaurants>

3)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40325minimumwageandwomenreportfinal.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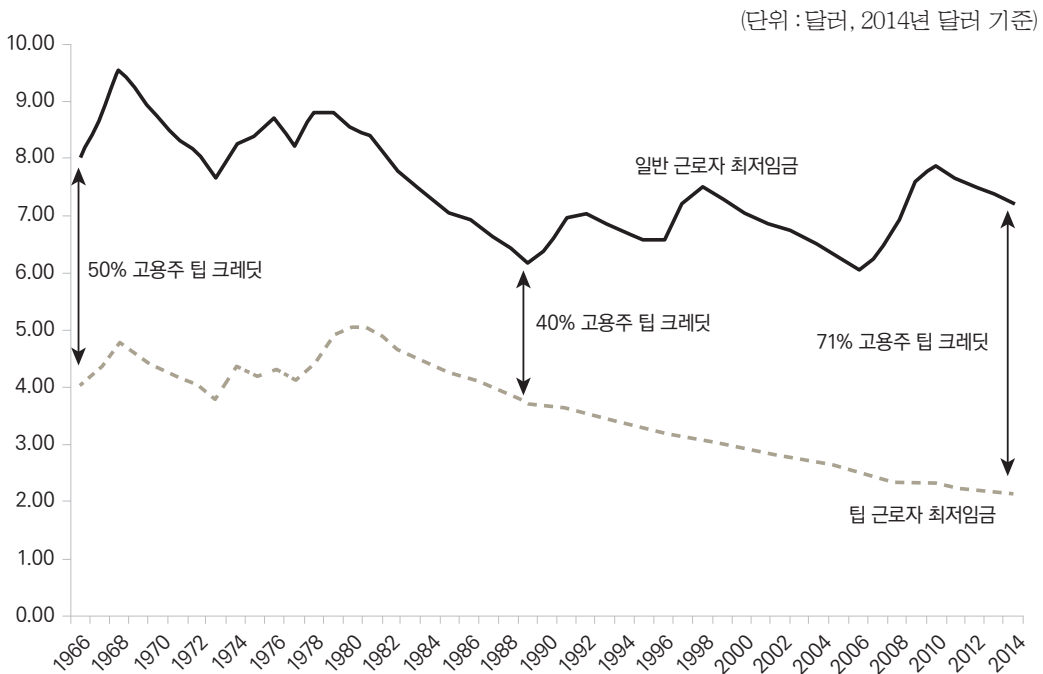
4) <http://www.epi.org/publication/waiting-for-change-tipped-minimum-wage/>

7.2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체계가 분리된 것은 1966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용주에게 일반 근로자 적용 최저임금의 50%까지 고용주 팁 크레딧을 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50%를 팁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특정 비율로 정하던 것을, 이후 199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인상법(Minimum Wage Increase Act)에서 이를 폐지하고 시간당 2.13달러로 고정시켰다. 최저임금인상법이 통과된 1996년 당시 2.13달러는 당시 최저임금인 4.25달러의 50%수준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최저임금이 4.75달러로 인상되면서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팁 근로자 최저임금 비율은 하락했다.

[그림 1]은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및 팁 근로자 최저임금 추이를 1966년에서 2014년

[그림 1]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및 팁 근로자 최저임금 추이(1966~2014년)



자료: 경제정책연구소(EPI)(2014),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 Figure A.

까지 정리한 것이다.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66년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팁 근로자 최저임금인 고용주 팁 크레딧이 50%였다가, 1980대 말 40%까지 줄었으나, 1996년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2.13달러로 고정된 이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이 이후 수차례 인상되면서 고용주 팁 크레딧은 크게 높아져 2014년 현재 71%까지 상승했다. 다시 말해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29%까지 하락했다.

## 주별 일반 근로자 및 팁 근로자 최저임금

연방법이 정한 일반 근로자 및 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

〈표 1〉 주별 일반 근로자 및 팁 근로자 최저임금(2015년 11월 9일 현재)

(단위 : 달러, %)

주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달러)	팁 근로자 최저임금(달러)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팁 근로자 최저임금 비율(%)
미 연방기준	7.25	2.13	29.4
상: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 팁 근로자 최저임금(8개 주)			
알래스카	8.75	8.75	100.0
캘리포니아	9.00	9.00	100.0
하와이	7.75	7.75	100.0
미네소타	8.00	8.00	100.0
몬타나	8.05	8.05	100.0
네바다	8.25	8.25	100.0
오리건	9.25	9.25	100.0
워싱턴	9.47	9.47	100.0
중: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2.13달러)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25개 주)			
코네티컷	9.15	5.78	63.2
뉴욕	8.75	5.65	64.6
콜로라도	8.23	5.21	63.3
애리조나	8.05	5.05	62.7
플로리다	8.05	5.03	62.5
일리노이	8.25	4.95	60.0
노스다코타	7.25	4.86	67.0
버몬트	9.15	4.58	50.1
아이오와	7.25	4.35	60.0
사우스다코타	8.50	4.25	50.0

주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달러)	팁 근로자 최저임금(달러)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팁 근로자 최저임금 비율(%)
오하이오	8.10	4.05	50.0
미주리	7.65	3.83	50.1
메인	7.50	3.75	50.0
메릴랜드	8.25	3.63	44.0
아이다호	7.25	3.35	46.2
뉴햄프셔	7.25	3.26	45.0
미시간	8.15	3.10	37.6
메사추세츠	9.00	3.00	33.3
로드아일랜드	9.00	2.89	32.1
펜실베이니아	7.25	2.83	39.0
워싱턴 D.C.	10.5	2.77	27.6
아칸소	7.5	2.63	35.1
웨스트버지니아	8.00	2.40	30.0
위스콘신	7.25	2.33	32.1
델라웨어	8.25	2.23	27.1
하: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2.13달러) 적용(18개 주)			
앨라배마	7.25	2.13	29.4
조지아	7.25	2.13	29.4
인디애나	7.25	2.13	29.4
캔자스	7.25	2.13	29.4
켄터키	7.25	2.13	29.4
루이지애나	7.25	2.13	29.4
미시시피	7.25	2.13	29.4
노스캐롤라이나	7.25	2.13	29.4
오클라호마	7.25	2.13	29.4
사우스캐롤라이나	7.25	2.13	29.4
테네시	7.25	2.13	29.4
텍사스	7.25	2.13	29.4
유타	7.25	2.13	29.4
버지니아	7.25	2.13	29.4
와이오밍	7.25	2.13	29.4
뉴멕시코	7.50	2.13	28.4
네브래스카	8.00	2.13	26.6
뉴저지	8.38	2.13	25.4

자료: 경제정책연구소(EPI).<sup>5)</sup>

5) [http://www.epi.org/minimum-wage-tracker/#/tip\\_wage/Washington D.C.](http://www.epi.org/minimum-wage-tracker/#/tip_wage/Washington D.C.)

게 적용한다. 두번째는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인 2.13달러보다는 높지만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 총 25개 주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5.65달러로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 2.13달러보다 높지만 뉴욕주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8.75달러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들 주의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 2.33달러(델라웨어)에서 최고 5.78달러(코네티컷)까지, 일반 최저임금 대비 팁 근로자 최저임금 비율은 최소 27.1%(델라웨어)에서 최고 67%(노스다코다)까지 다양하다. 마지막 그룹은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 2.13달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주들로 알라바마 등 총 18개 주가 이에 해당한다.

###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별 팁 근로자 규모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팁 근로자 수는 총 433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인구의 3.4%를 차지

〈표 2〉 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수준에 따른 근로자 분포(2014년 1월 1일 기준)

(단위 : 명, %)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전국 기준	상	중	하
전국	51	7	25	19
전체 근로자 수	127,063,149	22,978,789	58,997,685	45,086,676
구성비(%)		18.1	46.4	35.5
팁 근로자 수	4,343,264	797,185	2,145,438	1,400,640
구성비(%)		18.4	49.4	32.2
웨이터/바텐더 수	2,515,529	441,310	1,230,404	843,815
구성비(%)		17.5	48.9	33.5
전체 근로자 대비				
팁 근로자 구성비(%)	3.4	3.5	3.6	3.1
웨이터/바텐더 구성비(%)	2.0	1.9	2.1	1.9

주: 16세 이상, 자영업 제외,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기준(기점 시준이 달라 표 1과 일부 차이가 있음)

상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중 : 2.13달러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하 : 팁 근로자 최저임금=2.13달러

자료: 경제정책연구소(EPI)(2014),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 Table 1.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표 2 참조). 또한 팁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웨이터/바텐더 수는 251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인구의 2.0%를 구성하고 있다. 앞에서 적용한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구분해보면,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주(상)의 팁 근로자 수는 미국 전체 팁 근로자의 18.4%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절반 정도인 49.4%는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 2.13달러보다는 높지만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최저임금(중)을 받고 있으며, 32.2%는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인 2.13달러(하)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팁 근로자 임금 수준 및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이에 미치는 영향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에 따라 이들이 실제 받는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이들 주의 근로자 시간당임금 중앙값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정리한 좌측 열을 보면, 팁 근로자들의 임금 중앙값이 남성은 10.63달러, 여성은 10.07달러로 근로자 전체 시간당임금 15.09달러(여성), 18.13달러(남성)에 비해 크게 낮

<표 3>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별 팁 근로자 시간당임금 중앙값

(단위: 달러, 2013년 달러 기준)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전국	상	중	하
<b>근로자 전체</b>	<b>16.48</b>	<b>17.41</b>	<b>16.87</b>	<b>15.63</b>
여성	15.09	16.01	15.35	14.34
남성	18.13	18.75	18.51	17.29
<b>팁 근로자 전체</b>	<b>10.22</b>	<b>11.19</b>	<b>10.31</b>	<b>9.80</b>
여성	10.07	10.91	10.14	9.55
남성	10.63	11.74	10.73	10.11
<b>웨이터/바텐더</b>	<b>10.11</b>	<b>11.48</b>	<b>10.20</b>	<b>9.52</b>
여성	9.89	11.20	9.97	9.14
남성	10.71	12.02	10.99	10.09

주: \*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기준(기점 시준이 달라 표 1과 일부 차이가 있음)

상: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중: 2.13달러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하: 팁 근로자 최저임금=2.13달러

자료: 경제정책연구소(EPI)(2014),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 Table 1.

은 것을 볼 수 있다.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눠보면,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이 높을 수록 팁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팁 근로자 전체의 시간당임금 중앙값은,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주(하)의 경우 9.80달러인데, 그보다 높지만 주의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주(중)에서는 10.31달러, 그리고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주(상)에서는 11.19달러로 차이가 있다.

## ■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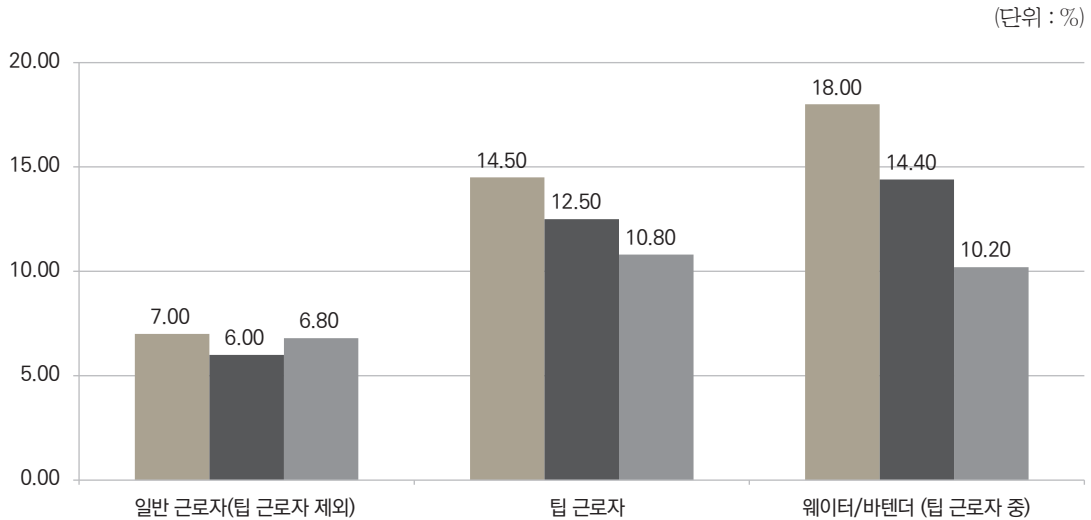
소위 하킨-밀러법안(Harkin-Miller bill)이라고 불리는 2014년에 제안된 공정최저임금법(Fair Minimum Wage Act of 2014)은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더해,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현행 2.13달러에서 인상된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10.1달러의 70%를 유지할 것, 다시 말해, 7.07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① 팁 근로자들의 빈곤율 개선, ②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팁 근로자 최저임금 분리 시스템의 법적 준수, ③ 고객 및 동료들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팁 근로자들의 빈곤율 개선

팁 근로자들의 빈곤율은 팁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빈곤율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팁 근로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웨이터/바텐더들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이들의 빈곤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별 빈곤율을 정리한 것이다. 팁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빈곤율이 6~7%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팁 근로자의 빈곤율은 이보다 크게 높은 10.8~14.5%수준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웨이터/바텐더의 경우 10.2~18%까지 더 높은 것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림 2]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별 빈곤율



주 : \* 주별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기준

상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중 : 2.13달러 < 팁 근로자 최저임금 < 주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하 : 팁 근로자 최저임금=2.13달러

자료 : 경제정책연구소(EPI)(2014), "Twenty-Three Years and Still Waiting for Change", Figure E.

주목할 것은 이들 팁 근로자들의 빈곤율이 팁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팁 근로자의 빈곤율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주의 경우 10.8%인데 비해,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 2.13달러를 적용받는 경우 14.5%로 더 높았으며, 이 같은 차이는 웨이터/바텐더의 경우에 더욱 크게 벌어져,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주의 경우 10.1%인 데 비해, 연방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주의 경우 무려 18%의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그 결과 팁 근로자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는 비율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팁 근로자 이외의 일반 근로자들의 35%가 평균 2,114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는데 비해, 팁 근로자의 46%가 평균 2,588달러의 연방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팁 근로자 최저임금 분리 시스템의 법적 준수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팁 근로자 최저임금과 고객들로부터의 팁을 합산한 수입이 일반 근로자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를 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 팁 근로자의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런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실현시키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많은 팁 근로자가 이런 고용주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연방 최저임금-실질 임금(팁 포함) 차액이 얼마인지는 주당 근로시간이 반복적일 경우 16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많은 경우 팁 근로자들의 근로 스케줄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들 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본인의 팁 수입이 얼마인지를 기록해야 하는데, 홀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근로자들이 받은 팁을 주방 등에서 일하며 고객들로부터 팁을 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팁 수입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더해 팁 수입이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용주와 같이 계산해야 하는데, 고용주는 식당 내 어떤 테이블을 어떤 웨이터/웨이트리스에게 맡길 것인지 (손님이 많은 인기 있는 테이블일수록 팁 수입이 높을 수 있다) 결정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족분을 고용주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고용주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 2010~2012년에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 담당 부서(Wage and Hour Division)가 9천여 개의 식당을 조사한 결과, 이들 식당의 83.8%가 어떤 경우로든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후속 조치로 임금 차액을 받지 못한 82,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5,680만 달러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했으며, 이들 적발된 식당에 총 2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고객 및 동료들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팁 근로자의 72%는 여성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객 및 동료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sup>6)</sup> 2014년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라는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sup>7)</sup>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80%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4%는 동료나 상사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이들 여성 근로자들은 고객들의 팁에 수입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추행/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이를 묵인하고 참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성추행/성희롱 경험은 팁 근로자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은데, 조사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주에 비해, 연방 최저임금 미만의 팁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는 주에서 여성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경험 비율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는 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 체계를 아예 없애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KLI**

6) <http://www.nytimes.com/2014/10/19/nyregion/when-living-on-tips-means-putting-up-with-harassment.html>

7) [http://rocunited.org/wp-content/uploads/2014/10/REPORT\\_The-Glass-Floor-Sexual-Harassment-in-the-Restaurant-Industry2.pdf](http://rocunited.org/wp-content/uploads/2014/10/REPORT_The-Glass-Floor-Sexual-Harassment-in-the-Restaurant-Industry2.pdf)

8)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5/nov/07/tips-sexual-harassment-minimum-wage>